

문화자본의 상속성과 획득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식 속에 존재하는 두 차원의 문화자본*

신효원**

조정래***

〈目 次〉

- | |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
| II. 문화자본의 두 차원 | V. 결론 |
| III.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두 차원 검증 | |

〈요 약〉

Bourdieu에 의하면 문화자본은 상속성과 획득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 개인의 문화자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분과 개인의 노력으로 획득한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은 문화자본의 이러한 두 가지 속성이 개인의 인식 속에서 경험적으로 존재하는지를 고찰한다.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문화자본이 단일구조인지 이중구조인지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문화자본은 이론적으로 논의되는 것과 같이 개인의 인식 속에서도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이라는 두 차원으로 구별된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독립적인 두 차원으로 구별되기보다 어느 정도 상관관계($r=0.7$)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은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사회적, 시대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며, 정부는 획득자본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문화자본, 상속자본, 획득자본, 차원, 확인적 요인분석】

* 본 논문의 일부는 신효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비상임연구원(hwshin0227@gmail.com)

***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clcho@ewha.ac.kr)

논문접수일(2024.10.23), 수정일(2025.3.2), 게재확정일(2025.3.13)

I. 서론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한다. 음악, 미술, 무용 관련 교육을 받거나, 전시회, 공연을 관람하거나,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문화적 경험에 노출된다. 이러한 문화적 경험이나 취향이 특정계층에 독점되어 사회적 계층 간 차이를 드러내고, 이 차이가 사회적 이익으로 연결된다면 이는 하나의 자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계층이 문화적 지식이나 기술, 경험, 취향 등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문화적 상위층이 된다. 이러한 소유 정도가 타 계층과 구별될 만큼 분명하고, 이 차이가 학력, 취업, 계층의 계승과 연결된다면 이는 자본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프랑스 사회에서 발견한 Bourdieu는 문화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Bourdieu, 1984; 1986; Bourdieu & Wacquant, 2000; Bourdieu & Passeron, 2024).

Bourdieu(1984)에 의하면 이러한 문화자본은 상속성과 획득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부모로부터 문화자본을 물려받는다는 측면에서 상속성을 가진다. 부모가 자신이 가진 문화자본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 관련 지식이나 태도를 자녀에게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학원에 자녀를 보내 문화 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으며, 전시회나 공연장에 자녀를 데리고 가서 문화 경험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부모의 문화자본은 자녀에게 상속된다. 이와 반대로 문화자본은 획득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부모와 전혀 관계없이 본인의 자발적 관심과 노력으로 문화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문화 교육을 받고,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고, 문화 지식을 습득하면서 스스로 문화자본을 획득하고 축적하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자본은 상속성과 획득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며 이에 기초하여 문화자본을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으로 구분하였다(Bourdieu, 1984; 권현정·박화옥, 2008; 이형문, 2012; 류희진·허식, 2018; 김갑수, 2019).

상속자본과 획득자본, 이 두 개의 구성요소는 문화자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분석 틀을 제공한다. 선행연구들은 그동안 문화자본의 존재 유무 및 종류(DiMaggio & Useem, 1978; Erickson, 1996; Chan & Goldthorpe, 2007; Purhonen et al., 2011; 최셋별, 2002a; 2006; 최셋별·이명진, 2012), 문화자본과 사회적 계층성과의 관계(DiMaggio, 1982; Kalmijn & Kraaykamp, 1996; Georg, 2004; 장미혜, 2002), 부모와 자녀 간 문화적 계승(De Graaf, 1989; Achaffenburg & Maas, 1997; De Vries & De Graaf, 2008; Van Hek & Kraaykamp, 2015; Jæger et al., 2023), 문화자본의 사회적 이익 등(DiMaggio & Mohr, 1985; Katsillis & Rubinson, 1990; Dumais, 2002; 최영섭·이민규, 2000; 장미혜, 2001; 백병부·김경근, 2007;

장상수, 2008)을 검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연구대상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각 국가의 문화자본의 종류에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이익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국가 내에서도 문화자본의 유무 및 종류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부모와 자녀 간 문화적 상동성 또는 연계성에 대한 주장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연구결과는 Bourdieu의 이론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문화자본이 형성되는 과정, 그로 인한 유동성 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Bourdieu & Wacquant, 2000). 문화자본은 계층, 지식, 제도 등과 같은 사회 속 여러 단면들의 관계 속에서 사회에 속해 살고 있는 개인들의 동의나 의지 등에 의해 형성된 자본, 가치, 현상, 전략 등과 같은 것이다(Bourdieu & Wacquant, 2000). 여러 단면들의 양상과 관계, 동의했던 사람들의 의견이나 인식 등이 변하게 되면 문화자본의 종류나 이로 인한 사회적 이익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그 특성 또한 변화할 수 있다(Prieur & Savage, 2011).

그렇다면 문화자본을 구성하는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관계 또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자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자본의 구성요소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다(최셋별·이명진, 2013; 김갑수·한상연, 2018). 그리고 구성요소에 주목하였다 할지라도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에 주목한 연구는 더욱 희귀하며, 두 차원의 존재 여부, 두 차원의 구별되는 성격, 그리고 두 차원의 관계성 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다. 이는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이 정확한 숫자로 표시되거나 구체적인 실체로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이 두 개의 구성요소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자본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두 개의 구성요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검증하는 것은 문화자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또한, 문화자본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연구함에 있어 구성요소의 차원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어떤 개념이 다차원(multi-dimensionality)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를 단일차원(uni-dimensionality)으로 이해할 경우 그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잘못된 인과관계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게 된다(Bollen & Grandjean, 1981). 예를 들어 삶의 만족은 세 가지 서로 다른 차원의 만족, 즉 경제적 차원, 건강 차원, 사람들과의 관계 차원의 만족으로 구성된다(노유지 외, 2018; 조정래·노유지, 2021). 즉, 삶의 만족은 다차원적 개념이다. 그런데 삶의 만족을 단일차원으로 이해하고 경제적 만족만을 측정한다든지 또는 건강 차원의 만족만을 측정한다면 삶의 만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게 된다. 제대로 측정되지 않은 삶의 만족을 종속변수나 독립변수로 사용할 경우 잘못된 인과관계에 도달하게 된다.¹⁾ 이

1) 개인의 학력이 경제적 차원의 삶의 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건강이나 사회적 관계 차원의 삶의 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학력 수준과 삶의 만족 간의 인과관계를 고찰함에 있어 삶의 만족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삶의 만족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별하고 각 차원의 삶의 만족과 학력 간의 인

처럼 어떤 추상적 개념을 이해할 때 이를 단일차원으로 이해할 것인지 또는 다차원으로 이해할 것인지는 개념의 측정, 그리고 측정된 개념을 이용한 인과관계 규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두 개 요소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공백을 채우면서 이론적으로 구별되는 두 차원의 문화자본이 개인의 인식 속에 경험적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개인이 두 차원의 문화자본을 구분하여 인식하는가이다. 즉, 부모의 영향 아래 취득한 상속자본과 자신의 관심과 노력으로 습득한 획득자본을 경험적으로 구분하는가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문화자본의 차원(dimensionality)과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은 문화자본이라는 추상적 개념의 차원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문화자본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다. 문화자본을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이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분리하고, 이러한 이론적 차원이 개인의 인식 속에서도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그들의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문화자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추상적 개념의 차원성(dimensionality)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II. 문화자본의 두 차원

1. 문화자본, 상속자본, 획득자본

Bourdieu(1986)는 자본을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으로 구분하면서 문화자본을 교육이나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문화적 지식, 기술, 취향, 습관 등으로 정의하였다. 오랜 문화적 경험을 통하여 개인에게 내재된 태도, 지식, 취향 등을 의미하는 문화자본은 한 개인이 태어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축적된다(Bourdieu, 1986; Anheier et al., 1995). 사회화 과정이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관습, 가치체계, 행동방식 등을 오랜 시간 동안 익히거나, 이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문화적 지식, 기술, 취향, 습관 등이 개인에게 내면화되는 것이다.

과관계를 고찰하여야 한다.

개인의 문화자본은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으로 구성된다. 상속자본이란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문화자본을 의미한다(Bourdieu, 1984). 자녀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은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이다. 부모로부터 경제자본을 상속받듯이 문화자본도 부모로부터 상속받는다. 부모는 자신의 문화적 지식, 기술, 태도, 취향 등을 자녀에게 상속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직접 음악, 미술, 무용을 가르치기도 하고, 예술 관련 교육 기관에 자녀를 보내 교육을 받게 하기도 하며, 음악회, 전시회, 공연장에 자녀와 함께 가서 자녀들을 문화 경험에 노출시키기도 한다. 그 결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미술, 음악, 무용 등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식견이나 취향 등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부모의 문화자본은 자녀에게 상속된다. 만약 이러한 경험이나 활동을 부모와 함께 하지 못한 자녀는 상속자본이 부족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경험이나 활동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녀는 상속된 문화자본을 이들보다 더 많이 축적한다. 그리고 상속받은 문화자본을 기초로 하여 더 많은 문화자본을 습득하고 확대할 수 있다(Bourdieu, 1986; De Graaf, 1989; Katsillis & Rubinson, 1990; Nagel, 2010; Van Hek & Kraaykamp, 2015; 남은영, 2010; 류희진·허식, 2018). 즉, 상속자본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문화적 경험이나 활동에 있어 자녀에게 미친 영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의 영향력에 따라 문화자본은 차이가 날 수 있다. 부모의 영향력을 문화자본을 전달하는 통로로 보고 Bourdieu는 문화자본의 차이가 사회적 계층적 차이를 명확하게 나타낸다고 보았다(Bourdieu, 1984; Bourdieu & Passeron, 2024). 사회적 상위 계층은 타 계층과 구별되는(distinguishing) 문화적 습관, 성향, 태도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DiMaggio & Useem, 1978; Bourdieu, 1984; Hendon, 1990; Holt, 1998; Purhonen et al., 2011; 조돈문, 2005; 최섯별, 2014). 이에 따라 이후 연구자들은 문화자본을 사회적 계층과 연결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Katsillis & Rubinson(1990)은 문화자본을 “한 사회의 상류집단이 지니는 문화, 행동, 습관, 태도”, Kingston(2001)은 “사회 내 엘리트층의 주요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문화적 신호들”, Dumais(2002)는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가진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 언어 및 문화역량”, 최섯별(2003a)은 “사회적 구분과 배제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화적인 성향”으로 이해한다. 이들은 사회의 상위 계층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습관, 태도, 행동, 성향 등을 문화자본으로 정의하며 문화자본은 문화적 차이를 넘어 문화적 차별과 사회적 배제의 수단임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문화자본은 어떤 특정 계층이 다른 계층과 비교하여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구별짓는 요인이 되는데, 상류층이 선호하는 특정 음악, 미술, 무용 등에 대한 태도나 성향은 사회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화자본의 또 다른 측면으로 획득자본이 있다. Bourdieu는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상속자본이 학교와 같이 공인된 교육 제도를 통해 획득자본으로 전환된다고 보았다. 자녀들이 상속받은 문화적 지식이나 기술, 식견이나 취향 등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이나 평가, 진학 등에 기여한다면 이는 획득자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Bourdieu(1984)에게 획득자본은 학교와 같은 교육장소를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여러 자질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문화적 지식이나 기술, 식견이나 취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성적, 진학 등에서 얻는 혜택 등도 포함한다. 이에 획득자본의 정의는 교육이나 훈련과 관련되어 정의되거나 본인 스스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취득한 문화자본 등으로 정의된다(장미혜, 2002; 김갑수, 2019).²⁾ 이와 같은 획득자본의 개념적 정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학교나 교육 제도 하에서 본인이 직접 배우거나 훈련을 받는 행위, 그 효과 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도 획득자본을 본인이 직접 참여한 문화와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 등으로 정의한다. 즉 본 논문에서 획득자본은 부모가 아닌 본인의 문화적 관심, 활동, 경험에 관한 개념이다.

개인은 가정, 사회 내 제도, 사회적 계급 등이 얽힌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을 습득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가정과 학교 외에도 학원, 사회적 교육 모임(동호회, 동아리 활동 등), 문화시설, 미디어와 정보 기술, 자기 주도적 학습 등을 통해 문화자본을 습득하고 축적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김슬기·전범수, 2016; 서주환·이유진, 2018). 이러한 문화 체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대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문화자본의 획득성이 강화될 수 있다. 가정 이외의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 기회 속에서 습득되는 획득자본은 상속자본과 대비된다. 획득자본은 부모의 영향보다는 개인의 자발적 의지와 관심, 노력으로 획득한 문화적 경험, 지식, 기술, 태도, 취향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문화자본이라 할 수 있다.³⁾

2.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관계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개인이 가진 상속자본은 획득자본을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기술했듯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자본을 바탕으로 개인은 더 많은 획득

2) 장미혜(2002)는 공식적인 교육의 효과로, 김갑수(2019)는 청소년기 이후 부모의 영향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취득한 자본으로 정의하였다.

3)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자본과 관계없이 본인의 자발적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 습득하고 축적한 문화자본인 획득자본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본인의 문화자본', '자신만의 문화자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득자본을 습득할 수 있다(Katsillis & Rubinson, 1990; De Vries & De Graaf, 2008; Nagel, 2010; Andersen & Jæger, 2015; Van Hek & Kraaykamp, 2015; Gracia, 2015; 남은영, 2010; 류희진·허식, 2018).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창 시절 부모와 함께 한 문화 활동과 자녀의 성인기 문화활동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가 많았다(De Vries & De Graaf, 2008; Van Hek & Kraaykamp, 2015). 부모와 함께한 문화 활동에 대한 친숙함으로 인해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함께 한 활동을 무의식적 또는 의식적으로 모방하기 때문이다(Gracia, 2015).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물질적, 시간적 투자도 자녀의 획득자본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De Vries & De Graaf, 2008; Gracia, 2015; Andersen & Jæger, 2015; 최셋별, 2002a). 예를 들어, 미술관을 관람하거나 클래식 음악회 연주에 참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여 자녀와 함께 음악회에 자주 간다면 자녀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문화적 예를 직접적으로 소개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Gracia, 2015; Van Hek & Kraaykamp, 2015).

학원이나 개인 레슨 등과 같은 교육은 또 다른 예이다. 이는 일시적인 공연이나 전시 관람보다 장기간의 물질적, 시간적 투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공자 또는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질 높은 지식이나 감성이 자녀에게 제공될 수 있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통해 문화자본을 축적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1960년대 전만해도 클래식 음악을 위한 악기를 접할 기회가 적었고, 악기 가격 또한 상당히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클래식 음악 교육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최셋별, 2002a).

정리하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활동, 그리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친다(Gracia, 2015). 그 결과 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 간에 문화적 특성이 강하게 연결되며, 또한 성인이 된 자녀는 상속자본을 기반으로 스스로 문화자본을 획득하게 된다. 상속자본과 획득자본 간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문화자본이 사회적 계층성을 지니며 계층 간 문화적 불평등이 세대를 이어 확대 재생산되는 것도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연관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문화적 이동성 모델이다(DiMaggio, 1982). 문화적 이동성 모델은 부모의 문화자본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승된다는 문화적 재생산 모델의 주장을 반박한다. 문화자본 개념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미국을 배경으로 한 이 모델은 프랑스와는 다른 사회적 조건을 배경으로 제시된 이론이다. 사회적 계층 간 이동성이 유연하고, 사회적 계층별 문화적 특성이 분명하게 구분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부모의 배경이나 어린 시절의 경험 등이 문화자본을 온전히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DiMaggio, 1982).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위 계층에 속하지 못하는 계층도 개인의 관심이나 노력을 통하여 문화자본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문화자본의 습득은 사회적 상위 계층과 친해지거나 사회적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De Graaf et al., 2000). 이 주장은 미국을 제외한 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다(De Graaf et al., 2000; Andersen & Jæger, 2015). 문화적 이동성 모델에 따르면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관계는 문화적 재생산 모델에서 주장하는 만큼 강하지 않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대사회에서 상속자본과 획득자본 간의 관계를 단순하게 연결시켜 가정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문화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Kisida, Greene, & Bowen, 2014; Serre & Wagner, 2015; Coulangeon, 2015; 김슬기·전범수, 2016; 서주환·이유진, 2018). 또한 사회적 조건이나 맥락이 상속자본과 획득자본 간 연관성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려주기 때문이다(DiMaggio, 1982; Prieur & Savage, 2011; 최셋별·이명진, 2012).

현대사회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전보다 약화되고 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 시기에만 하더라도 개인의 성향이나 개성보다는 부모, 친척 등 자신이 속한 집단의 성향이나 특성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적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어떤 행위나 관심, 취향 등이 자라온 환경에 따르는 경향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또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특히 한국 학생의 경우 중학교 시기부터 가정에서보다 친구들과 함께 학교와 학원 등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문화적 특성을 지닌 친구들과의 관계는 부모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접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DiMaggio, 1982).

또한, 문화적 환경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예술 관련 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이고 교육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 공연장 또는 전시회장과 같은 문화기반시설이 충분하지 못하여 문화적 경험 기회가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문화자본을 상속받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문화자본을 획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⁴⁾ 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문화자본을 획득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에서는 상속자본이 획득자본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동호회, 온라인 학습과 같은 다양한 사회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공연·전시회장과 같은 문화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발적 의지와 노력으로

4) 관련해서 서울 또는 경기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시회 관람을 포함한 다양한 여가활동을 누리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결과는 문화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알려준다(유승호 외, 2022).

문화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정보의 통로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김슬기·전범수(2016)는 현재 20대 성인의 경우 미디어와 정보 기술의 발달로 부모와 관계없이 본인 스스로 문화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는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관계는 약화되며, 개인의 문화자본 형성에 있어 획득자본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 내 다양한 교육 기회, 문화기반시설, 미디어와 정보 기술 등에 따라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관계가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에 더하여 개인주의(individualism)의 확산 또한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주의는 집단이나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체제로 부모나 가족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형성해 가는 개인을 상정한다(이영자, 2011).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시대적 사조를 배경으로 개인은 기존 질서나 가치체계를 중시하기보다 자신의 개성이나 특성, 취향, 관심에 더욱 몰입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문화자본의 형성에 있어 획득자본의 중요성은 증가시키는 반면 상속자본의 중요성은 감소시킨다.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력과 성취가 가치 있게 여겨지며 개인의 선택과 취향이 존중되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자본보다 자신의 선택과 취향을 반영하는 획득자본에 더욱 가치를 둔다. 또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네트워크보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따라서 동호회나 동아리 활동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자본의 습득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인주의의 확산은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관계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획득자본의 상대적 중요성을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문화자본에는 상속자본과 관련 없는 획득자본이 존재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자본이 없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예술적 소질이나 재능, 관심이나 적성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홍성민, 2022).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태어나 자란 조건이나 환경에서 습득하는 부분도 있지만, 타고난 소질이나 재능, 적성 등을 가지고 있다. 부모와 유사한 재능을 가지고 유사한 직업을 선택한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와 다른 소질과 재능을 가지고 이를 개발해 가는 자녀들도 있다. 자신이 느끼는 재미와 잘하는 분야를 쫓아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는 것 또한 문화자본을 습득하는 방법이다.

Ⅲ.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두 차원 검증

1. 문화자본의 측정

Bourdieu(1986)에 따르면 문화자본은 사회화 과정에서 문화적 경험을 통하여 개인에게 내재된 문화 관련 지식, 자질, 취향 등이다. 따라서 문화자본을 측정하기 위하여 문화적 경험의 대상을 무엇으로 하는가가 중요하다. 문화의 영역은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자본에 관한 많은 실증연구에서 이를 조작화 할 때 고급예술을 많이 사용한다. 이는 Bourdieu가 문화적 상동성(cultural homology)⁵⁾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상위 계층의 문화적 특이성을 클래식 음악, 미술 등 고급예술에서 찾았기 때문이다(Bourdieu, 1984; 김영화, 2021). 이후 여러 연구들에서도 문화자본의 전형적인 대상으로 고급예술을 사용하였다(DiMaggio, 1982; Katsillis & Rubinson, 1990; Achaffenburg & Maas, 1997; De Vries & De Graaf, 2008; Kraaykamp & Van Eijck, 2010; Van Hek & Kraaykamp, 2015). 국내 연구에서도 문화자본의 전형적인 대상으로 고급예술을 사용한 경우가 많다(최셋별, 2002a; 2002b; 2003a; 최셋별·이명진, 2013).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고급예술에 한정하여 문화자본을 측정하였다.

문화자본 관련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고급예술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atsillis & Rubinson(1990)은 공연장, 박물관, 미술 갤러리, Achaffenburg & Maas(1997)는 음악(악기 연주나 성악 등), 시각 미술(조각, 회화, 사진, 영화제작), 공연(연극, 무용), Kraaykamp & Van Eijck(2010)은 클래식 음악, 연극, 미술관, Nagel(2010)은 클래식 음악, 오페라, 발레, 미술관, Purhonen et al.(2011)은 음악, 문학, 영화, 미술을 사용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최셋별(2014)은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고급문화로 인지되는 장르를 조사하였는데 클래식/오페라 공연 관람, 뮤지컬 관람, 무용 공연 관람, 미술 전시회 관람 순으로 인지하고 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은 음악 장르 중 가장 고급스러운 문화로 인지하고 있었다. 유은영·진현정(2016)은 고급예술 분야로 클래식 공연, 오페라 공연, 무용 공연, 미술 전시회, 국악 공연(전통음악 공연) 등 다섯 장르를 선정하였으며, 박주연·신형덕(2018)은 서양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을 고급예술로 선정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자본 측정을 위해 클래식 음악, 미술, 무용을 고급예술의 대표적인 예로 선정하였다.

5) 사회 계층과 그 계층에 속한 사람의 문화적 취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그 결과 개인의 문화적 취향이 자신이 속한 사회 계층을 반영하게 된다. 하지만 문화참여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문화적 상동성이 약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연구는 문화자본을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따라서 개인의 문화자본 축적 과정에서 언제까지가 상속의 시기에 해당되고 언제부터 획득의 시기에 해당하는지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시기와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선택과 가치판단으로 문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의견이 강해지는 시기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10대 이후 또는 청소년기이며 선행연구에서도 상속자본을 10대 시기 또는 청소년기 이전 시기에 습득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De Graaf et al., 2000; 김갑수, 2019). 하지만 이러한 시기 구분은 국내 연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가 매우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 전까지 교육을 포함한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권현정·박화옥, 2008). 이러한 현실에서 입시 과목이 아닌 음악, 미술, 무용과 관련된 교육이나 음악회, 전시회 관람 등은 부모의 의도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대학 입학 이후부터 부모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개인의 독립적, 자율적 선택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학 입학 전후’라는 표현을 설문조사에서 사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응답자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학 입학 시기와 연령이 비슷하면서 법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성년기를 중심으로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을 구분하는 시점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자본은 미성년기에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 전수된 문화자본이며, 획득자본은 성년기에 자신의 자발적 노력과 경험으로 습득한 문화자본이라 할 수 있다.

1) 상속자본 측정

부모가 자녀에게 문화자본을 상속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자녀에게 음악·미술을 가르치거나, 자녀를 학원에 보내거나, 자녀와 함께 공연, 전시를 보러 갈 수 있다. 자녀에게 이와 같은 문화적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문화적 태도, 지식, 자질, 취향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먼저 본 논문은 상속자본을 측정하는데 사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⁶⁾ 다음으로, 공연, 전시회 관람 경험을 포함하였다. 이는 공교육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6) 공교육을 통해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나 의지, 부모의 취향 등이 반영되기 어렵다. 공교육에서 초중고 교육은 거의 무료다. 또한, 국내의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문화와 관련된 과목의 수는 적다. 초등교과의 경우 1,2학년이 배우는 과목에는 음악, 미술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등교과의 경우 거의 동일한 교과목으로 운영되며, 이 중에서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목은 미술, 음악과 같은 예술 과목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이다. 국내의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진 예술교육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의 문화자본 보유량은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수정 외, 2015) 따라서 부모의 상속자본은 부모의 취향이나 의지, 자녀에 대한 물질적, 시간적 지원 등이 반영될 수 있는 학원, 개인 레슨 등의 사교육을 통해 측정할 필요가 있다.

활동이 아니면서 물질적, 시간적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들의 청소년기에 이러한 활동은 부모의 의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⁷⁾ 또한 집이나 학교가 아닌 외부에서의 공연이나 전시 관람과 같은 문화활동은 집이나 학교에서의 활동보다 더 중요한 문화자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Achaffenburg & Maas, 1997). 또한 이 측정요소는 부모의 문화자본이나 상속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자주 사용한 요소이다(Achaffenburg & Maas, 1997; De Vries. & De Graaf, 2008).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권유한 책·잡지·뉴스 등과 같은 자료에 대한 경험을 추가하였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책이나 잡지, 신문 등을 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이다(Gracia, 2015). 또한,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풍부한 문화적 경험이나 지식을 갖추고 있다 해도 자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집 안에서 대화나 여가 활동을 통해 자녀에게 이를 상속하기는 어려웠으며(장미혜, 2001), 부모는 자녀에게 독서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적 간접 경험을 권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리하면, 상속자본을 측정하기 위하여 3가지 하위 지표(사교육/ 공연·전시회 경험/ 책·잡지·뉴스 같은 자료 경험)에 집중하였다. 아래의 세 가지 상속자본 측정 설문 문항은 김갑수(2019)와 Achaffenburg & Maas(1997)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표 1〉 상속자본 측정 문항

-
1. 나는 미성년일 때 부모님의 권유로 고급예술(클래식 음악, 미술, 무용 등)과 관련된 사교육을 받았다.
① 전혀 없음 ② 아주 가끔 ③ 가끔 ④ 자주 ⑤ 매우 자주
 2. 나는 미성년일 때 부모님의 권유로 고급예술(클래식 음악, 미술, 무용 등)의 공연 또는 전시를 관람한 경험이 있다.
① 전혀 없음 ② 아주 가끔 ③ 가끔 ④ 자주 ⑤ 매우 자주
 3. 나는 미성년일 때 부모님의 권유로 고급예술(클래식 음악, 미술, 무용 등)과 관련된 자료(책, 잡지, 뉴스 등)를 접한 경험이 있다.
① 전혀 없음 ② 아주 가끔 ③ 가끔 ④ 자주 ⑤ 매우 자주
-

각 질문 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는 〈표 2〉와 같다.

7) 한국 사회의 경우 초중고 교육은 대학 입시와 연결된다. 따라서 대학 입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활동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따라서 문화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데에는 부모의 의지가 필요하다.

〈표 2〉 상속자본 측정 문항 응답분포(%)와 평균

측정항목	①	②	③	④	⑤	평균
사교육(n=622)	44.2	17.0	11.7	10.8	16.2	2.38
공연전시(n=622)	37.9	22.5	25.2	10.6	3.7	2.20
자료경험(n=622)	44.7	24.0	19.9	9.0	2.4	2.00

먼저, 부모의 영향으로 고급예술 관련 사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55.8%이며,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응답자가 44.2%로 사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자주 또는 매우 자주 받은 응답자는 27%로 응답자의 약 1/4이 부모의 영향으로 고급예술 사교육에 상당히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영향으로 공연·전시를 관람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2.1%는 그런 경험이 있으며, 37.9%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또는 매우 자주 공연·전시를 관람한 응답자는 14.3%로 사교육과 비교하여 낮은 수치이다. 부모의 권유로 고급예술 관련 책, 잡지, 뉴스와 같은 자료를 접한 경험의 경우 응답자의 44.7%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5.3%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주 또는 매우 자주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11.4%로 낮은 수치이다.

각 하위 지표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고급예술 사교육에 있어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며, 다음이 공연·전시 경험이며 책, 잡지, 뉴스와 같은 자료를 경험하는데 있어 부모의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녀의 문화자본 상속에 있어 고급예술 사교육이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원, 개인교습과 같은 사교육을 통해 음악, 미술, 무용 같은 고급예술에 자녀를 노출시키는 부모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획득자본 측정

개인은 가정 이외의 다양한 사회, 교육, 문화적 환경 속에서 문화자본을 습득하고 축적한다. 본인의 문화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획득자본은 두 가지 하위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측정한다. 첫째는 본인의 문화에 대한 태도이다. 태도는 개인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성향 등을 전반적으로 반영한다. 부모의 영향력이 아닌 본인이 스스로 문화자본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에 대한 스스로의 호기심, 흥미, 욕구 등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화 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경제적 요인,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족이 아니라 문화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획득자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태도이다(Willekens & Lievens, 2016; 유은영·진현정, 2016). 특히 성인기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본인의 관심에 따라 무엇을 선택하고, 시간이나 물질을 어느 정도 투자하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결정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 활동이다. 자발적으로 학원, 개인교습, 온라인 학습을 통하여 문화예술 교육을 받아 본 경험과 동호회나 동아리 활동은 문화자본 획득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표 3〉 획득자본 측정 문항

태도	1. 나는 고급예술(클래식 음악, 미술, 무용 등)에 관심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나는 고급예술(클래식 음악, 미술, 무용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아깝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나는 고급예술(클래식 음악, 미술, 무용 등)에 대한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과 나눈다. ① 전혀 없음 ② 아주 가끔 ③ 가끔 ④ 자주 ⑤ 매우 자주
교육 및 활동	4. 나는 성인이 된 후 자발적으로 고급예술(클래식 음악, 미술, 무용 등)과 관련된 모임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다. ① 전혀 없음 ② 1년 이하 ③ 1년 초과-2년 이하 ④ 2년 초과-3년 이하 ⑤ 3년 초과 5. 나는 성인이 된 후 자발적으로 학원이나 레슨 등을 통해 고급예술(클래식 음악, 미술, 무용 등)을 배운 경험이 있다. ① 전혀 없음 ② 1년 이하 ③ 1년 초과-2년 이하 ④ 2년 초과-3년 이하 ⑤ 3년 초과 6. 나는 성인이 된 후 온라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고급예술(클래식 음악, 미술, 무용 등)에 관하여 공부한 적이 있다. ① 전혀 없음 ② 아주 가끔 ③ 가끔 ④ 자주 ⑤ 매우 자주

문화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3가지 하위 지표로 고급예술 자체에 대한 관심, 고급예술 관련 지출에 대한 인식, 고급예술 관련 대화를 사용하였고 문화 관련 교육과 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3가지 하위 지표로 고급예술 모임 활동, 고급예술 관련 자발적 사교육, 고급예술 학습 경험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 질문 문항은 김갑수(2019), Georg(2004), 최명일 외(2017), 류희진·허식(2018) 연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각 질문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는 〈표 4〉와 같다. 고급예술에 대한 관심에서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으로 답한 응답자가 22.8%를 차지하며 나머지 77.2%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3/4은 고급예술에 관심이 있다고 할 것이다. 고급예술에 비용지출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가진 응답자가 20.6%로 응답자의 약 1/5을 차지하며 나머지 약 4/5는 비용지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예술에 대한 대화 경험에 있어 응답자의 약 1/4은 대화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급예술에 대한 비용지출 의사는 3.24로 가장 높고, 관심은 3.20, 그리고 대화 경험이 2.40

으로 가장 낮다. 이는 고급예술에 대한 관심과 비용지출 의사와 비교하여 실제로 주위 사람과 고급예술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경험은 적다고 할 것이다.

〈표 4〉 획득자본 측정 문항 응답분포(%)와 평균

구분	측정항목	①	②	③	④	⑤	평균
태도	관심(n=622)	8.2	14.6	37.8	27.3	12.1	3.20
	비용지출(n=622)	5.3	15.3	39.4	30.2	9.8	3.24
	대화(n=622)	25.1	29.6	28.6	13.5	3.2	2.40
교육 및 활동	모임참석(n=622)	60.0	19.6	9.5	4.8	6.1	1.77
	자발적 사교육(n=622)	61.7	18.5	8.7	5.3	5.8	1.75
	온라인학습(n=622)	37.5	19.5	25.6	12.7	4.8	2.28

다음으로 고급예술과 관련된 교육과 활동 경험을 살펴보면 고급예술 모임 참석의 경우 응답자의 60%가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0%는 경험은 있으나 그 중에서 약 절반은 모임에 참석한 경험이 1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으로 고급예술에 관한 사교육을 받아 본 경험은 모임 참석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응답자의 61.7%가 자발적 사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8.5%가 1년 이하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또는 3년 넘게 자발적으로 사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약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예술 관련 온라인 학습 경험의 경우 응답자의 62.5%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가끔’ 온라인을 통해 공부하는 경우가 약 1/4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값을 통하여 고급예술 관련 교육 및 활동을 살펴보면 온라인 학습이 2.28로 가장 높았으며 모임 참석과 자발적 사교육은 점수가 비슷한데 1.77과 1.75이다. 고급예술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스스로 학습한 경험이 가장 높은 이유는 모임 참석이나 자발적 사교육에 비하여 접근하기 수월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2. 자료 및 연구모형

1)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자료는 2021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주민을 상대로 수집되었다. 표본 추출(sampling)에 있어 비례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 인구가 전체 서울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25개 자치구 주민을 표본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5>에서 제시하였다. 남성이 301명(48.4%), 여성이 321명(51.6%)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19세-29세는 148명(23.8%), 30세에서 39세는 156명(25.1%), 40세에서 49세는 127명(20.4%), 50세에서 59세는 96명(15.4%), 60세 이상은 95명(15.3%)으로 나타나 30대와 40대가 표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123명(19.8%), 전문대 재학 및 졸업이 103명(16.6%), 대학 재학 또는 졸업이 306명(49.2%), 대학원 재학 및 수료 졸업이 83명(13.3%), 대학원 졸업 이후 과정이 7명(1.1%)으로 나타나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이 표본의 거의 2/3를 차지한다. 가계 월수입은 200만 원 미만인 107명(17.2%), 200만-400만 원 미만이 208명(33.3%), 400만-600만 원 미만이 127명(20.4%), 600만-800만 원 미만이 96명(15.4%), 800만 원 이상이 84명(13.5%)으로 나타나 월수입 400만원 이상이 표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표 5〉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표본의 구성 (n=622)	빈도	비율(%)
성별	남	301	48.4
	여	321	51.6
연령	19-29세	148	23.8
	30-39세	156	25.1
	40-49세	127	20.4
	50-59세	96	15.4
	60세 이상	95	15.3
최종 학력	고졸이하	123	19.8
	전문대 재학 및 졸업	103	16.6
	대학 재학 또는 졸업	306	49.2
	대학원 재학, 수료 졸업	83	13.3
	대학원 졸업 이후 과정	7	1.1
가계 월수입	200만 원 미만	107	17.2
	200만-400만 원 미만	208	33.3
	400만-600만 원 미만	127	20.4
	600만-800만 원 미만	96	15.4
	800만 원 이상	84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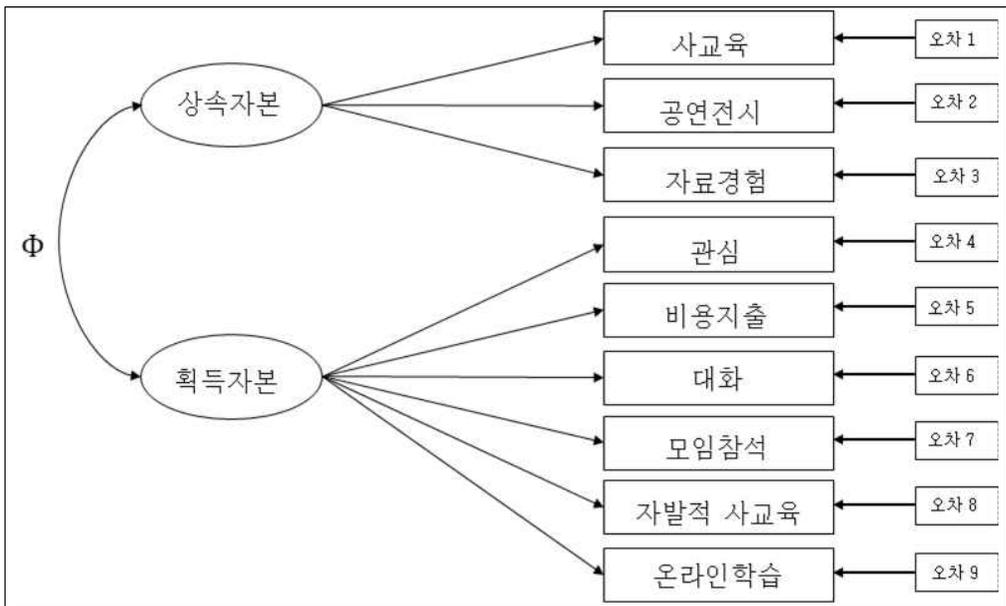
2) 연구모형

개인이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을 구별하여 인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확

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그림 1>과 같이 잠재변수(latent variable), 관찰변수(indicator), 측정오차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가설적 관계를 데이터로 검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은 잠재변수이며 상속자본의 하위 변수인 사교육, 공연전시, 자료경험 그리고 획득자본의 하위 변수인 관심, 비용지출, 대화, 모임참석, 자발적 사교육, 온라인 학습은 관찰변수이다. 관찰변수는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여야 하며, 관찰변수를 통하여 잠재변수가 측정된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중요한 장점 중의 하나는 측정오차를 모형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서 완벽한 측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측정에는 항상 측정오차가 발생한다. 이런 측정오차를 연구모형에 고려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이 단일차원인지 이중차원인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두 모형, 즉 단일구조모형(uni-dimension model)과 이중구조모형(dual-dimension model)을 비교하여 어느 모형이 더 좋은 모형인지를 확인한다. <그림 1>에서 단일구조모형과 이중구조모형을 결정하는 부분은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파이(ϕ)이다. 파이(ϕ)가 1이면 단일구조모형이고 파이(ϕ)가 1이 아니면 이중구조모형이다. 다시 말해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상관관계가 1이면 두 개념은 동일한 개념이므로 단일구조모형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중구조모형이 된다.

<그림 1>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차원분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연구모형에 어떤 제약조건을 부과하고 그 제약조건이 타당한지를 검증한다. 이때 제약조건이 가해진 모형은 제약조건이 가해지지 않은 모형에 내포(nested)된다(Bollen, 1989; Kline, 2005). 본 연구에서 단일구조모형은 이중구조모형에 내포되는 것이다. 단일구조모형은 파이(ϕ)가 1이라는 제약이 가해졌고, 이중구조모형은 파이(ϕ)가 1이라는 제약이 가해지지 않았다. 어떤 모형이 다른 모형에 내포될 경우 두 모형은 χ^2 값을 비교하여 더 좋은 모형을 확인할 수 있다(Bollen & Grandjean, 1981; Kline, 2005). 두 모형의 χ^2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제약이 가해지지 않은 모형이 더 좋은 모형이 되고, 두 모형의 χ^2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제약조건이 가해진 모형이 더 좋은 모형이다. 두 모형의 χ^2 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은 두 모형의 적합도에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며, 이런 경우 제약조건이 가해져서 자유도가 큰 모형이 더 좋은 모형이 된다. 두 모형의 χ^2 값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우 제약조건이 부가된 간결한 모형⁸⁾(parsimonious model)이 더 좋은 모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일구조모형과 이중구조모형의 χ^2 값을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면 이중구조모형이 더 좋은 모형이며, χ^2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단일구조모형이 더 좋은 모형이 된다. 달리 표현하면 모형에 부과된 제약조건이 데이터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상관관계(ϕ)가 1이라는 제약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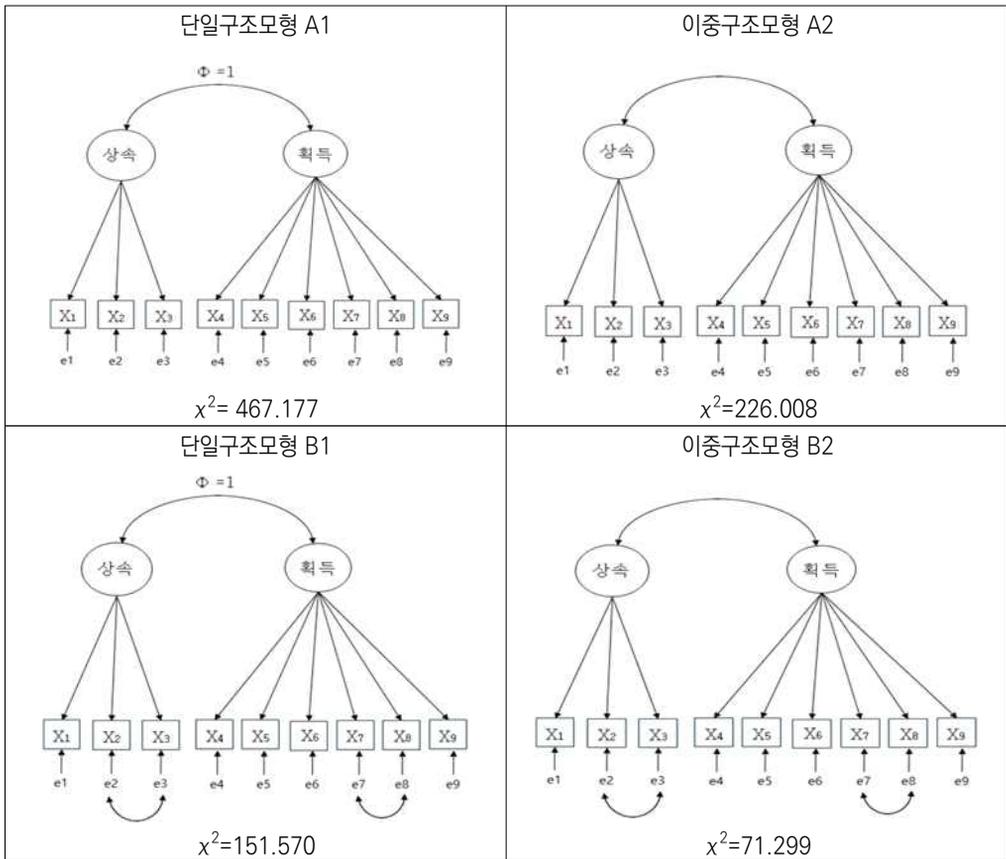
IV. 분석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분석결과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관계구조를 고찰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단일구조모형과 이중구조모형을 비교하였다.

8) 간결한 모형은 자유도(degree of freedom)가 더 큰 모형을 의미한다. 제약조건이 가해지면 자유도가 커지며 더 간결한 모형이 된다. 제약조건 숫자만큼 자유도가 증가한다. 하나의 제약조건이 가해지면 자유도가 1 증가하고 제약조건이 두 개가 가해지면 자유도가 2 증가한다.

〈그림 2〉 단일구조모형과 이중구조모형 비교를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X_1 =사교육, X_2 =공연전시, X_3 =자료경험, X_4 =관심, X_5 =비용지출, X_6 =대화, X_7 =모임참석, X_8 =자발적 사교육, X_9 =온라인교육, $e_1 \sim e_9$: 측정오차

〈그림 2〉의 왼쪽에 있는 A1과 B1은 단일구조모형으로 파이(Φ)가 1이라는 제약조건이 주어졌다. 오른쪽에 있는 A2와 B2는 이중구조모형으로 파이(Φ)가 1이라는 제약조건이 없다. A1과 B1 차이점은 측정오차의 상관관계에 있다. B1은 e_2 와 e_3 , e_7 과 e_8 상관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A1은 그러한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측정오차끼리의 상관관계 설정은 모형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이다. A2와 B2의 차이점은 A1과 B1의 차이점과 동일하다. A1, A2, B1, B2 네 개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단일구조모형과 이중구조모형의 분석결과

	단일구조 A1 (N=622)	이중구조 A2 (N=622)	단일구조 B1 (N=622)	이중구조 B2 (N=622)
상속자본-)>사교육	.542**	.610***	.514***	.622***
상속자본-)>공연전시	.690***	.838***	.627***	.820***
상속자본-)>자료경험	.705***	.839***	.638***	.815***
획득자본-)> 관심	.598***	.626***	.646***	.660***
획득자본-)> 비용지출	.488***	.512***	.526***	.537***
획득자본-)> 대화	.761***	.781***	.793***	.806***
획득자본-)>모임참석	.682***	.716***	.628***	.631***
획득자본-)> 사교육	.705***	.720***	.642***	.635***
획득자본-)>온라인학습	.708***	.721***	.736***	.739***
상속자본 (<-)획득자본	1 (non-test)	.719***	1 (non-test)	.732***
e2(<-)e3			.510***	.11(p=.422)
e7 (<-)e8			.514***	.517***
모형적합도	$\chi^2=467.177^{***}$ df=27; GFI=.844; AGFI=.739; NFI=.807; IFI=.816; RMSEA=.162	$\chi^2=226.008^{***}$ df=26; GFI=.920; AGFI=.862; NFI=.906; IFI=.916; RMSEA=.111	$\chi^2=151.570^{***}$ df=25; GFI=.944; AGFI=.900; NFI=.937; IFI=.947; RMSEA=.090	$\chi^2=71.299^{***}$ df=24; GFI=.974; AGFI=.951; NFI=.970; IFI=.980; RMSEA=.056

*p<0.05 **p<0.01 ***p<0.001

A1과 A2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하면 A2의 모형적합도가 더 나은 것을 알 수 있다. GFI, AGFI, NFI, IFI의 경우 0.9보다 크면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RMSEA의 경우는 0.1보다 작은 값이면 좋은 모형이라 할 수 있다(Kelloway, 1998). 이러한 조건에 비추어 볼 때 A2가 A1보다 더 좋은 모형이다. 그러나 내포(nested) 관계에 있는 두 모형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도비검증(likelihood ratio test)이 더 적절하다. 우도비검증은 하나의 모형이 다른 모형에 내포될 때 두 모형의 χ^2 값을 비교하여 더 좋은 모형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단일구조모형인 A1의 χ^2 값은 467.177(df=27)이며 이중구조모형인 A2의 χ^2 값은 226.008(df=26)이다. A1과 A2의 χ^2 값의 차이는 241.169이며 자유도의 차이는 1이다. 이 χ^2 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p<0.001) 이는 이중구조모형이 단일구조모형보다 더 좋은 모형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한다.

우도비검증을 통하여 이중구조모형인 A2가 단일구조모형인 A1보다 더 좋은 모형임이

확인되었으나 A2의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 특히 모형적합지수 AGFI와 RMSEA의 값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 따라서 모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측정오차 e2와 e3, e7과 e8의 상관관계를 설정하여 B1과 B2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모형적합도가 훨씬 좋아졌다. A1과 B1을 비교하면 χ^2 값의 차이가 315.60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p < 0.001$)한 차이이며 다른 모형적합도 지수도 모두 향상되었다. A2와 B2의 경우 χ^2 값의 차이는 154.70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p < 0.001$)한 차이이며 다른 모형적합도 지수도 모두 개선되었다. 측정오차의 상관관계를 고려함으로써 모형적합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적합도가 향상된 B1과 B2를 비교하면 χ^2 값의 차이는 80.271이며 자유도 차이는 1이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p < 0.001$)한 차이이며 이중구조모형이 단일구조모형보다 더 좋은 모형임이 다시 한번 검증되었다. 최종적으로 이중구조모형이면서 측정오차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B2 모형이 가장 모형적합도가 좋은 연구모형으로 확인되었다.

2.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관계에 관한 분석결과

개인의 문화자본은 이론적으로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개인의 인식 속에서도 이 두 개의 구성요소가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은 단일구조가 아니라 이중구조임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 개인은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둘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인식하는가? 그렇지 않다.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상관관계는 이중구조모형 A2에서 0.719, B2에서 0.732이며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은 단일 차원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독립적이지도 않다.

〈그림 3〉 상속자본과 획득자본 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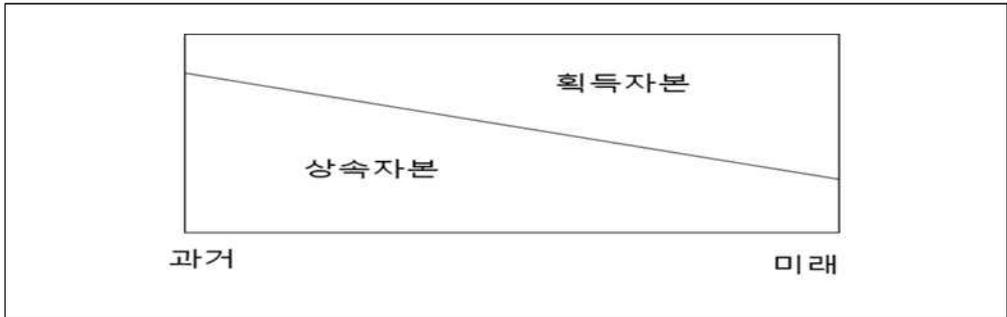
그러면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이 이중구조이면서 동시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그림 3〉은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관계를 보여준다.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은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고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부분도 있다.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이 서로 겹치는 부분은 부모의 상속자본이 개인의 획득자본에 영향을 미쳐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이 혼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성년 시절 부모와 함께 공연이나 전시회를 많이 다닌 사람이 성인이 된 이후에 자발적으로 공연이나 전시회를 많이 다닐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물질적, 시간적 지원을 통한 미성년기 예술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문화자본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문화자본이 자발적으로 문화자본을 획득하는 데 있어 기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자본이 풍성한 개인이 더 많은 획득자본을 습득할 수 있다. 이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자본이 자녀의 획득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상통한다(De Vries. & De Graaf, 2008; Van Hek & Kraaykamp, 2015; Gracia, 2015; 류희진·허식, 2018). 또한 부모와 자녀 간 문화적 재생산을 주장한 Bourdieu의 모델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면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이 겹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자본이 획득자본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상속자본으로만 끝나는 경우 상속자본은 획득자본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부모가 상속자본을 제공하여도 개인 스스로 문화예술에 흥미를 갖지 못하거나 자신의 개성이나 취향이 부모와 다를 경우 상속자본은 상속자본으로 그칠 뿐 더 이상 개인의 획득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상속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는 획득자본이 존재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자본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더라도 자신이 가진 소질, 재주, 흥미에 따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으로 문화자본을 획득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문화관련 모임에 참여하고, 공연이나 전시회를 다니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스스로 획득자본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은 <그림 3>과 같이 상호 연관되면서 동시에 독립적일 수 있다.

그리고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관계는 사회적 맥락,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회가 어떤 조건과 환경을 가진 사회인가에 따라 그 관계가 달라진다. 계층 간의 이동이 어렵고,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고, 부모가 물려주는 상속자본 이외에는 문화자본을 습득하기 어려웠던 시기에는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상관관계는 강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자발적 노력으로 문화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하고, 사회 계층 간 이동과 교육의 장이 열려 있으며, 미디어와 정보 기술의 발달로 문화적 정보나 경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관계가 약화된다. 즉, <그림 3>에서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이 교차하는 부분과 독립적인 부분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

〈그림 4〉 개인 문화자본 구성의 시대적 변화와 예측



〈그림 4〉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시간적 변화에 따라 개인의 문화자본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도식적으로 표현하였다. 과거에는 개인의 문화자본에서 상속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화적 경험이라는 것은 일부 특권층에 한정되어 있었고 그 결과 문화자본은 사회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오면서 개인의 문화자본의 구성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문화 지식과 다양한 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연·전시장과 같은 문화시설이 많아 문화 참여가 훨씬 수월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미디어와 정보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문화관련 지식, 학습, 공연·전시 관람 등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상속자본 없이도 자신만의 문화자본을 습득하고 축적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더하여 개인주의의 발달은 상속자본보다 획득자본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개인주의는 집단이나 공동체보다 개인의 특성, 취향, 관심에 더욱 몰입하는 특징이 있다. 개인의 독립성, 자기 주도적 성향, 자아실현, 다양한 문화적 취향과 경험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전통적이거나 가족주의적 가치관,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 취향은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과거에서 미래로 갈수록 개인의 문화자본 구성에서 획득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상속자본의 영향이 감소하며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관계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V. 결론

개인의 문화자본은 미성년 시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자본과 성년 이후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축적한 획득자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구분되어지는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이라는 두 차원의 문화자본이 개인의 인식 속에서 경험적으로 구분되

는지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상속자본과 획득자본 개념을 단일 구조와 이중구조라는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고 어느 모형이 데이터에 더 잘 적합한지를 판단함으로써 문화자본 개념의 구조적 차원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은 두 차원으로 구분된다. 문화자본은 이론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식 속에서도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으로 구분되는 이중구조를 가진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자본과 본인 스스로 취득한 획득자본을 서로 다른 차원으로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문화자본을 측정할 때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으로 구분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적절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둘째,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은 서로 다른 두 차원으로 구분되지만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 상속자본이 풍부한 개인은 이를 기초로 하여 더 많은 획득자본을 습득할 수 있다. 상속자본이 풍부한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은 문화자본을 획득하는 데 있어 출발점이 서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상속자본이 획득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보편적 상식을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은 서로 독립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부모의 영향력이나 사회 계층과 관계없이 본인의 문화자본을 스스로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문화자본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가 이중적임을 보여준다. 즉, 부모의 문화자본이 자녀의 문화자본 형성에 영향을 주어 문화자본의 계층 간 불평등과 사회 계층의 재생산이 존재함과 동시에 본인 스스로의 관심이나 노력에 의해서 문화자본이 형성되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문화적 재생산 모델과 문화적 이동성 모델 모두 공존하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분석결과가 제시하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면 첫째, Bourdieu의 문화자본 이론이 현재의 한국 사회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문화자본은 사회 계층을 규정하고 재생산된다는 Bourdieu의 주장이 현실 적합성을 가진다. 부모들의 문화적 태도, 지식, 취향이 자식들에게 물려지고 이를 물려받은 자식들은 더 많은 문화자본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 계층 간 부모의 영향력으로 인한 문화자본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한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상관관계가 약 0.7로 나타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둘째, 계층 간 문화자본의 불평등 확대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문화자본의 계층 간 격차는 존재한다. 이는 상속자본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문화복지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해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바우처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문화예술분야를 포함하여 스포츠 관람, 여행 등에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이나 문화 소외 아동들을 직접 방문하여 문화예술 프로

그램을 소개하는 신나는 예술 여행과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문체부, 2024). 이러한 복지 정책은 상속자본의 결핍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또한 상속자본과 관계없는 획득자본의 영역이 존재함을 본 연구는 보여준다. 획득자본은 문화자본을 스스로 판단, 선택, 참여하여 습득하는 영역이다. 획득자본은 상속자본보다 능동적으로 습득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삶의 방향이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이다. 따라서 문화에 관심이 있는 개인에게 정부는 문화 교육, 학습, 활동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환경적 요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화정책 중에서 사회교육 정책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전 국민이 생애 주기에 맞추어서 학교 외의 다양한 장소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직 관련 프로그램이 많지 않지만 점차 그 중요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2022년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한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정책으로 여겨진다. 또한, 미술관 무료 관람 정책 또한 문화적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2013년 정부는 문화기본법 제정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는 성별, 세대,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권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문화기본법 제4조). 이러한 법 제정은 개인이 스스로 문화자본을 습득하고 강화하는데 있어 유용한 제도적 장치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상세한 실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계층성이 약화되고 개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또래 또는 동호회나 동아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간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나 친밀감이 이전보다 약화된 상태에서 개인의 관심이나 취미를 함께 나눌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 지원의 방법으로 문화예술 동호회나 동아리와 같은 단체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문화자본의 대상을 클래식 음악, 미술, 무용 등과 같은 고급예술에 한정하였다는 것이다. 문화자본의 대상은 대중예술, 언어능력, 스포츠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김종영, 2008; 최섯별, 2003b; 최섯별·최유정, 2011). 또한 사회적 계층이 높을수록 고급예술뿐만 아니라 대중예술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옴니보어 이론의 타당성이 주목받고 있다(Peterson & Kern, 1996; 김두이·금현섭, 2018).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로서의 영어 실력이 국내에서 문화자본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자본의 대상을 고급예술에 한정하지 않고 좀 더 확대 및 다양화하고 이를 기초로 문화자본의 이중구조를 고찰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준만. (2015). 「학벌은 계급, 체면은 자본(e-book)」. 개마고원.
- 권현정·박화옥. (2008). 베이비붐세대의 문화자본이 문화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8(3): 535-553.
- 김갑수. (2019). 「문화예술 향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갑수·한상연. (2018). 문화자본 측정지표의 개발 및 검증. 「우리 춤과 과학기술」. 43: 167-187.
- 김경근·변수용. (2007). 한국사회에서의 학업성취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7(1): 23-51.
- 김동일. (2016). 「피에르 부르디외 (e-book)」. 커뮤니케이션북스(주).
- 김두이·금현섭. (2018). 문화예술향유의 다양성 측면에 대한 검토: 혼종성과 균등성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2(2): 115-143.
- 김수정·이명진·최셋별. (2015).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개인의 문화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 29(2): 4-25.
- 김수정·최셋별. (2018). 부르디외의 지적 전통이 한국 문화정책에 갖는 함의. 「문화정책논총」. 32(2): 33-55.
- 김슬기·전범수. (2016). 20대 문화소비의 다양성 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2): 762-771.
- 김영화. (2021). 「피에르 부르디외와 교육」. 교육과학사.
- 김인설. (2022). 청소년과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소고. 「청소년문화포럼」. 72: 171-177.
- 김종영. (2008). 글로벌 문화자본의 추구: 미국 유학 동기에 대한 심층 면접 분석. 「한국사회학」. 42(6): 68-105.
- 남은영. (2010). 한국 중산층의 소비문화: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4(4): 126-161.
- 노유지·이혜경·이원형·조정래. (2018). 경제, 건강, 관계자원과 다차원적 삶의 만족: 중고령인구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6(3): 233-267.
- 류희진·허식. (2018). 시기별·활동별 문화자본에 따른 순수예술 관람수요 결정요인 분석: 전시예술품과 공연예술간 비교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2(2): 87-113.
- 문화체육관광부. (2024). 「2023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주연·신형덕. (2018). 문화자본론과 옴니보어 이론의 실증적 비교: Peterson(1992) 모델의 적용. 「문화정책논총」. 32(2): 57-86.
- 백병부·김경근. (2007). 학업성취와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구조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17(3): 101-129.

- 서순복. (2009). 문화적 자본 이론을 활용한 지역문화향유의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 연구」. 20(1): 15-39.
- 서주환·이유진. (2018). 문화소비지출에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 문화, 경제 및 정보자본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31(4): 863-886.
- 유승호·박인영·장안식. (2022). 한국인의 여가활동과 문화자본: 잠재집단분석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25(1): 105-131.
- 유은영·진현정. (2016).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이 문화예술 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27(6): 79-103.
- 이상길. (2020). 「상징권력과 문화: 부르디외의 이론과 비평」. 컬처북.
- 이영자. (2011). 신자유주의 시대의 초개인주의: 개인주의의 후기 근대적 변종. 「현상과 인식」. 114: 103-127.
- 이형문. (2012). 「문화자본과 예술관광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미혜. (2001). 문화자본과 소비양식의 차이. 「한국사회학」. 35(3): 51-81.
- 장미혜. (2002). 사회계층의 문화적 재생산. 「한국사회학」. 36(4): 223-251.
- 장상수. (2008). 가족배경, 문화자본, 성적. 「한국사회학」. 42(3): 68-85.
- 장혜지·장혜미·김재범. (2023). 한국의 문화자본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화경제연구」. 26(2): 3-29.
- 조돈문. (2005). 한국 사회의 계급과 문화: 문화자본론 가설들의 경험적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2): 1-33.
- 조정래·노유지. (2021). 자원 변수 중심으로 살펴 본 고령인구 삶의 만족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60(2): 475-498.
- 최명일·이귀옥·박조원. (2017). 문화 자본이 미술관 체험 만족 및 관람 후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31(2): 55-73.
- 최셋별. (2002a). 한국사회에서의 문화자본의 체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서양고전음악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4(3): 97-129.
- 최셋별. (2002b). 상류계층 공고화에 있어서의 상류계층 여성과 문화자본: 한국의 서양 고전음악 전공 여성 사례. 「한국사회학」. 36(1): 113-144.
- 최셋별. (2003a). 초등학생 여가에 대한 문화자본론적 고찰. 「여가학연구」. 1(2): 83-104.
- 최셋별. (2003b). 한국 사회에서의 영어실력에 대한 문화자본론적 고찰: 대학생들의 영어학습실태와 영어능력자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11: 5-21.
- 최셋별. (2006). 한국 사회에 문화자본은 존재하는가?. 「문화와 사회」. 1: 123-158.
- 최셋별. (2014). 한국 사회 문화의 상징적 위계에 대한 조사: 한국 사회의 고급문화는 무엇인가?. 「조사연구」. 15(4): 123-152.
- 최셋별·이명진. (2012). 한국의 문화자본 지형도 구분을 위한 척도개발 기초연구. 「조사연구」. 13(1): 61-87.

- 최셋별·이명진. (2013). 문화자본 지수의 개념화와 측정: 디마지오 문화자본 지수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2): 31-60.
- 최셋별·최유정. (2011). 문화자본론의 관점에서 본 영어의 한국적 의미와 구조. 「문화와 사회」. 10: 207-252.
- 최영섭·김민규. (2000). 한국인의 문화 소비 결정요인에 대한 일 고찰. 「문화정책논총」. 12: 229-260.
- 홍성민. (2000). 「문화와 아비투스: 부르디외와 유럽정치사상」. 나남.
- 홍성민. (2004). 「피에르 부르디외와 한국사회: 이론과 현실의 비교정치학」. (주)살림출판사.
- 홍성민. (2022). 「취향의 정치학: 피에르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읽기와 쓰기(8쇄)」. 현암사.
- Achaffenburg, K. & Maas, I. (1997). Cultural and Educational Careers: The Dynamics of Social Reprodu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4): 573-587.
- Andersen, I. G. & Jæger, M. M. (2015). Cultural Capital in Context: Heterogeneous Returns to Cultural Capital across Schooling Environments. *Social Science Research*. 50: 177-188.
- Anheier, H. K., Gerhards, J., & Romo, F. P. (1995). Forms of Capital and Social Structure in Cultural Fields: Examining Bourdieu's Social Topograph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4): 859-903.
-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John Wiley & Sons.
- Bollen, K. A. & Grandjean, B. D. (1981). The Dimension(s) of Democracy: Further Issues in the Measurement and Effects of Political Democra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5): 651-659.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Richard Nice, Trans). Harvard University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in 1979).
- Bourdieu, P. (1986). The Form of Capital. (Richard Nice, Trans).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241-258. New York: Greenwood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83).
- Bourdieu, P. & Passeron, J. C. (1970).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Richard Nice, Trans). SAGE Publications.
- Bourdieu, P. & Passeron, J. C. (2024). 「상속자들 (*Les Héritiers : Les Étudiants et la Culture*)」. 이상길(역). 후마니타스.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64).
- Bourdieu, P. & Wacquant, L. (2000). 「성찰적 사회학으로의 초대(*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이상길(역). 그린비.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92).
- Chan, T. W. & Goldthorpe, J. H. (2007). Social Stratification and Cultural Consumption: Music in England.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1): 1-19.
- Coulangeon, P. (2015). Social Mobility and Musical Tastes: A Reappraisal of the Social Meaning of Taste Eclecticism. *Poetics*. 51: 54-68.
- De Graaf, P. M. (1988). Parents' Financial and Cultural Resources, Grades, and Transition to

- Secondary School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4(3): 209-221.
- De Graaf, P. M. (1989). Cultural Reproduction and Educational Stratification. In Bakker, B. F. M., Dronkers, J., & Meijnen, G. W.(eds.).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the Welfare State: Longitudinal Studies in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Attainment in the Netherlands*. 39-57. Instituut voor Toegepaste Sociale Wetenschappen.
- De Graaf, N. D., De Graaf, P. M., & Kraaykamp, G. (2000). Parental Cultural Capital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Netherlands: A Refinement of the Cultural Capital Perspective. *Sociology of Education*. 73(2): 92-111.
- De Vries, J. & De Graaf, P. M. (2008). Is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igh Cultural Activities Biased by the Retrospective Measurement of Parental High Cultural Activ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5(2): 311-327.
- DiMaggio, P. (1982).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The Impact of Status Culture Participation on the Grades of US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2): 189-201.
- DiMaggio, P. & Mohr, J. (1985). Cultural Capital, Educational Attainment, and Marital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6): 1231-1261.
- DiMaggio, P. & Useem, M. (1978). Social Class and Arts Consumption: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Class Differences in Exposure to the Arts in America. *Theory and Society*. 5(2): 141-161.
- Dumais, S. A. (2002). Cultural Capital, Gender, and School Success: The Role of Habitus. *Sociology of Education*. 75(1): 44-68.
- Erickson, B. H. (1996). Culture, Class, and Connec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2(1): 217-251.
- Georg, W. (2004). Cultural Capital and Social Inequality in the Life Cours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0(4): 333-344.
- Gracia, P. (2015). Parent-child Leisure Activities and Cultural Capital in the United Kingdom: The Gendered Effects of Education and Social Class. *Social Science Research*. 52: 290-302.
- Hendon, W. S. (1990). The General Public's Participation in Art Museums: Visitors Differ from Non-Visitors, but Not as Markedly as Case Studies Have Indicated.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49(4): 439-457.
- Holt, D. B. (1998). Does Cultural Capital Structure American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5(1): 1-25.
- Jæger, M. M., Rasmussen, R. H., & Holm, A. (2023). What Cultural Hierarchy? Cultural Tastes,

- Status and Inequalit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74(3): 402-418.
- Kalmijn, M. & Kraaykamp, G. (1996). Race, Cultural Capital, and Schooling: An Analysis of Trends in the United States. *Sociology of Education*. 69(1): 22-34.
- Katz-Gerro, T. (1999). Culture Consumption and Social Stratification: Leisure Activities, Musical Tastes, and Social Location. *Sociological Perspectives*. 42(4): 627-646.
- Katsillis, J. & Rubinson, R. (1990). Cultural Capital, Student Achievement, and Educational Reproduction: The Case of Gree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2): 270-279.
- Kelloway, K. E. (1998). *Using Lisrel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Research Guide*.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Kingston, P. W. (2001). The Unfulfilled Promise of Cultural Capital Theory. *Sociology of Education*. 74: 88-99.
- Kisida, B., Greene, J. P., & Bowen, D. H. (2014). Creating Cultural Consumers: The Dynamics of Cultural Capital Acquisition. *Sociology of Education*. 87(4): 281-295.
- Kline, Rex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raaykamp, G. & Van Eijck, K. (2010). The Intergenerational Reproduction of Cultural Capital: A Threefold Perspective. *Social Forces*. 89(1): 209-231.
- Nagel, I. (2010). Cultural Participation Between the Ages of 14 and 24: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r Cultural Mobilit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6(5): 541-556.
- Nam, Eun-Young & Hong, Doo-Seung (2011). Class, Cultural Capital and Cultural Consumption: Exploring the Effects of Class and Cultural Capital on Cultural Taste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5(6): 115-129.
- Peterson, R. A. & Kern, R. M. (1996). Changing Highbrow Taste: From Snob to Omnivor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5): 900-907.
- Prieur, A. & Savage, M. (2011). Updating Cultural Capital Theory: A Discussion Based on Studies in Denmark and in Britain. *Poetics*. 39(6): 566-580.
- Purhonen, S., Gronow, J., & Rahkonen, K. (2011). Highbrow Culture in Finland: Knowledge, Taste and Participation. *Acta Sociologica*. 54(4): 385-402.
- Serre, D. & Wagner, A. C. (2015). For a Relational Approach to Cultural Capital: A Concept Tested by Changes in the French Social Space. *The Sociological Review*. 63(2): 433-450.
- Van Hek, M. & Kraaykamp, G. (2015). How Do Parents Affect Cultural Participation of Their Children?: Testing Hypotheses on the Importance of Parental Example and Active Parental Guidance. *Poetics*. 52: 124-138.
- Willekens, M. & Lievens, J. (2016). Who Participates and How Much? Explaining Non-Attendance and the Frequency of Attending Arts and Heritage Activities. *Poetics*. 56:

50-63.

Yamamoto, Y. & Brinton, M. C. (2010). Cultural Capital in East Asian Educational Systems: The Case of Japan. *Sociology of Education*. 83(1): 67-83.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Inherited and Acquired Cultural Capital: The Two Dimensions of Cultural Capital in Perception

Hyo-Won Shin & Chung-Lae Cho

Cultural capital has two attributes according to Bourdieu: inheritance and acquisition. In other words, an individual's cultural capital is composed of the portion inherited from their parents and the portion acquired through their own efforts. This paper explores whether these two attributes of cultural capital empirically exist in individuals' perception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whether cultural capital has a single or dual structure. The results indicate that, as theorized, cultural capital is perceived by individuals as being divided into two dimensions: inherited capital and acquired capital. However, rather than being entirely independent, the two dimensions are correlated to some extent ($r = 0.7$). In other words, inherited and acquired capital are independent yet interrelated. This interrelationship varies according to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and governments should make policy and institutional efforts to ensure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to acquire cultural capital.

【Keywords: cultural capital, inherited capital, acquired capital, dimensionalit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